농림축산식품부 동정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0.(금) 17:30 배포 2026. 11. 20.(금) 06:00

농식품부 장관, 현장·전문가와 함께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농촌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우수 사례 공유
-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내 순환구조 마련 및 주민 주도 서비스 주체 육성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1월 20일(금)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주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확대된 주민의 소비 여력이 지역 내 서비스 공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와 연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간담회에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 공동체, 지역지원기관, 지방정부 관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학계 및 외부 전문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의 농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계 방안을 공유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지역지원기관 운영 사례(충북 옥천), △사회적 농장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협력모델(경남 함양), △농어촌 상생기금을 활용한 이동장터(경북 영양), △주민 주도의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경남 김해)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청취하였다.

송 장관은 "농촌은 사회연대경제가 가장 필요한 곳이자, 그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며, "우리 농촌이 가진 공동체의 힘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신 현장 활동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최혜림 (044-201-1574)
			주무관	김정아 (044-201-1573)
			주무관	신소희 (044-201-1575)
			사무관	이아름 (044-201-1576)
			주무관	김진호 (044-201-15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